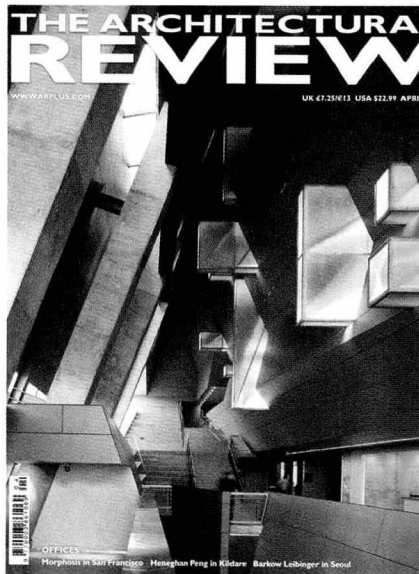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view 2007년 4월호는 주목할 만한 오피스 건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도 별도의 카테고리 분류되고있는 관청사와 일반 오피스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건물들은 주요한 장소에 상당한 면적과 부피를 차지함에도 자본적 논리에 의해 주변에 무심했던 그간의 오피스가 우리에게 보내는 반성문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

■ utopia regained  
샌프란시스코 청사 by  
모포시스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냉혹할 만큼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사무소 건축의 전통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로부터 시작했다. 라킨 빌딩에서 적용된 빌트인 시스템과 가구의 배치, 급식과 연수와 음악공연 시설의 조합, 완벽히 조절되는 공기조절 장치들은 단일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30년 뒤 라이트는 다시 한 번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무소 건물인 존스 왁스 빌딩(완벽하게 내향적인)을 디자인 하게 된다. 여기에 미스 반 데어 로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 낸 일련의 박스 건물을 거쳐 미국 사무소의 전형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벽이 없는 내향적인 것이었고, 외부와 격리된 밀봉된 박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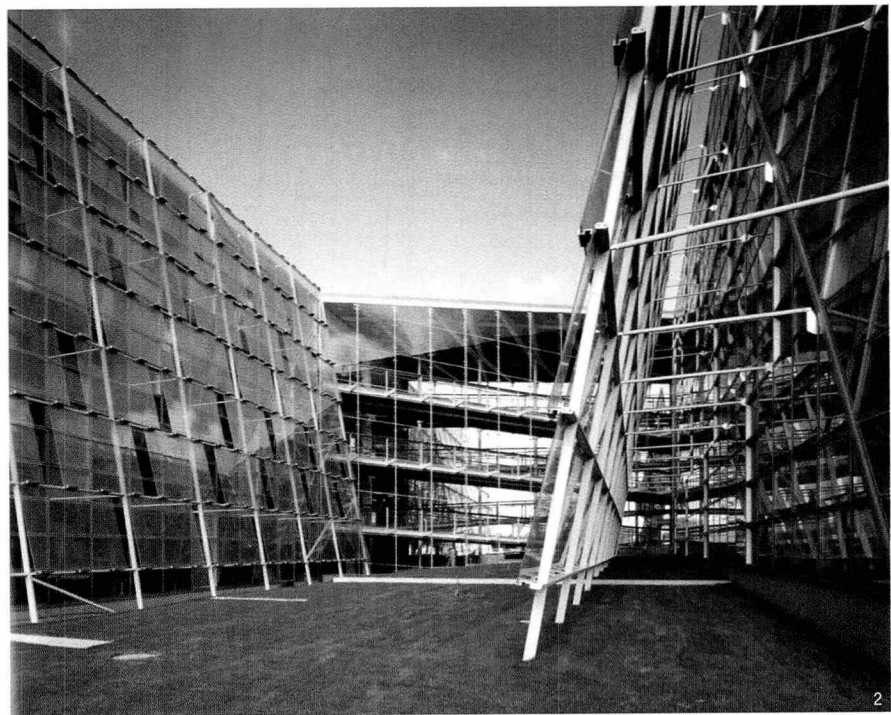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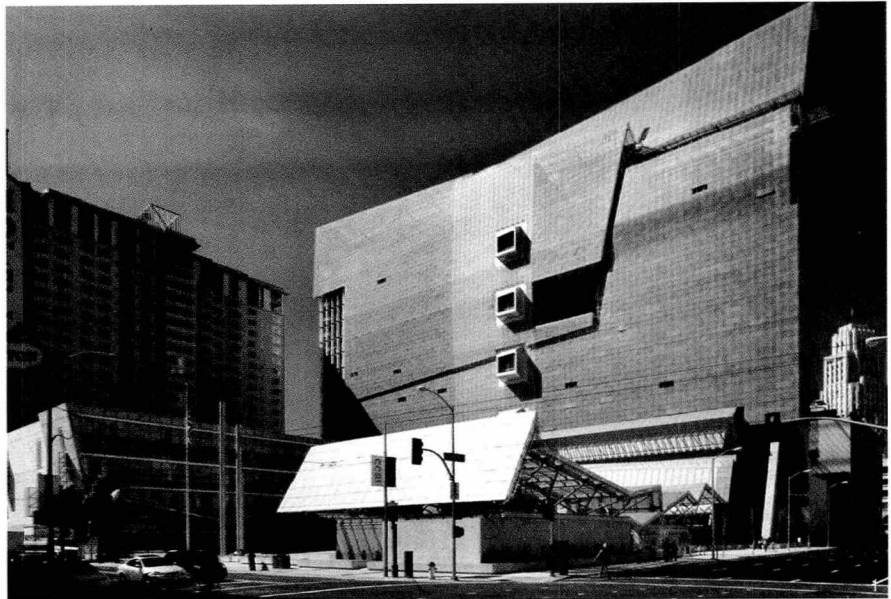
이 전형이 모포시스에 의해 급진적으로 재구축되었다. 기존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던 연방 정부의 ‘연방 정부 건물은 기념비적이면서도 열려있고 우호적이어야 하며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기조와 911 사태 이후 공공건물에서의 보안과 안전성이 강조되는 상황이 충돌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청사의 디자인은 기능을 우선하면서도 새로운 작업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했다. 기능 중에서도 거대한 부지의 잠재력을 살리고 도시의 새로운 중심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이 건축물에서 시민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미션 스트리트와 새로 조성된 광장에 면한 입구에 따라 방문객의 위한 시설을 4개층에 걸쳐 조직하였다.

한편 직원 식당을 본청사에서 분리하여 모두에게 개방된 독립 파빌리온에 설치하였으며, 컨퍼런스 센터와 주간 위탁 시설 또한 독자적으로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직원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모두 중시하는 계획하에 이 건물은 도시에서 장소성을 강조하는 도시계획의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 Daring Kildare  
킬데어 시청사 건물 by  
Heneghan Peng / 아일랜드 킬데어  
헤네건 핑의 첫 완공 작업인 아일랜드 킬데어의 관공서 건물은 이성과 급진성을 결합한 건축물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이슈는 연계성이다. 섬세하게 다듬어진 인공적 풍경을 통하여 건축물과 주변 컨텍스트, 그



DMC B6-2



1 SANF 2 Kildare

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과 각 부처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진입 광장은 사용자와 직원들이 안전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로부터 건물을 1.8m 경사지게 들어 올려 주출입부에 있어서의 위계를 만드는 동시에, 주변 환경에 순응하고 있다. 자연이 가지는 연속적이고 수평적인 특성과 고정적이지 않은 경계 등의 특성을 참조하면서 건물은 연속되면서 구부러진 입면과 유리의 특성을 심분 활용한 스킨을 가지게 되었다. 내부 정원을 향한 입은 전부 유리벽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유리벽 외부에는 25퍼센트의 유리 잿물로 처리된 녹색 스크린이 있다. 이 스크린에 의해 형성되는 녹색의 음영은 내부 정원 잔디와 어우러져 건물과 조경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3가지 방식의 표면처리-스팬드럴, 고투명 유리, 반사유리-는 연계라는 큰 원칙하에 정교하게 선택되었다. 자신들을 뮤지션이 아닌 지휘자로 인식하고, 창발적인 이미지 보다는 시스템과 정해진 프로그램을 중요시 하는 건축사의 특성은 이 건축물을 다양하고 섬세한 공간의 지적인 배열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들의 자기작을 기대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 The Mirrorball cracked

DMC B6/2 건물 by

Barkow Leibinger / 서울

전세계를 걸쳐 비즈니스 파크라는 장소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있다. 바로 '진. 부.함.' 상상력이 부족한 도시계획의 전제 밑에서 획일적인 블록들이 이식되고 그 위에 천편일률적인 유리 커튼월의 건물로 뒤덮여 지는 것이다. 서울 북부의 월드컵 주경기장 근처에 조성된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직 블록이 전부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특색 없는 고층 건물이 증식되리라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2001 emerging architecture award 수

상자인 Barkow Leibinger는 표준적인 스펙의 오피스 블록(건축물 이름을 보라. 너무도 무미건조해서 무슨 제품 모델명 같다)을 반짝거리고 조각난 미러글래스 스킨을 통해 색다른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 건물은 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700명의 직원을 수용하고 있으며, 11층의 오피스와 쇼룸, 그리고 옥상정원과 5개층의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 요소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없었으므로, 건축사는 내부로부터 외부로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입점이 예상되는 독일 기계 공구회사의 요구에 의해 1층 바닥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코어는 한쪽에 몰려있으며, 구조적 이유로 RC조로 코어를 구성하였으며 외부는 검은색 징크로 마감하였다. 외부 파사드의 기하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함몰된 개구부를 지나면 천정에 매단 계단의 진입로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외부 공간은 조각난 지형의 형태로 흡수되어 건물의 특성을 숨기고 위장하는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브루노 타우트의 파빌리온을 떠올리게 하는 이 건물이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위한 상징 혹은 완벽한 외피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서울과 DMC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Green Gauge

멜버른 시의회 건물 by Mick Pearce  
+ Design Inc / 호주 멜버른

90년대 중반 짐바브웨 하라레 개발 사업에서 공격적으로 기술에 의존하는 접근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환경 조절을

시도하였던 건축사 믹 피어스가 호주 로컬 건축사무소인 Design Inc와의 협업을 통해 멜버른 시의회 청사를 디자인 했다. 멜버른 시의회 건물인 CH2, 이런 접근을 확장 재정의 한 케이스이다.

무엇보다도 이 건물을 특징 짓는 요소는 담합이라도 한듯한 멜버른 도심부 오피스 건물들의 밋밋하고 암전하기 짝이 없는 외양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목조루버의 과격한 움직임이다.

이 루버들은 재생 목재들로 만들어 졌으며, 루버 회전은 태양전지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정된다. 길쭉한 북쪽 면에는(호주는 북쪽이 별이 잘드는 방향이다)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연속적인 프레임들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

태양이 비추지 않아 서늘한 남쪽 면에선 '샤워 타워' 라는 것을 두어 서늘한 공기와 물을 저층으로 순환시켜 지상층의 상업공간의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 환기는 건물의 자연적 환경조절의 키포인트이다. 뜨겁고 쿨리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여 천정의 빈틈을 지나북쪽 파사드의

'굴뚝' 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야간 배출과 PCM 전지를 사용하여 냉각을 저장하여 주간에 사용되며, 빗물 또한 저장되어 연구실과 일반용수는 정화되어 재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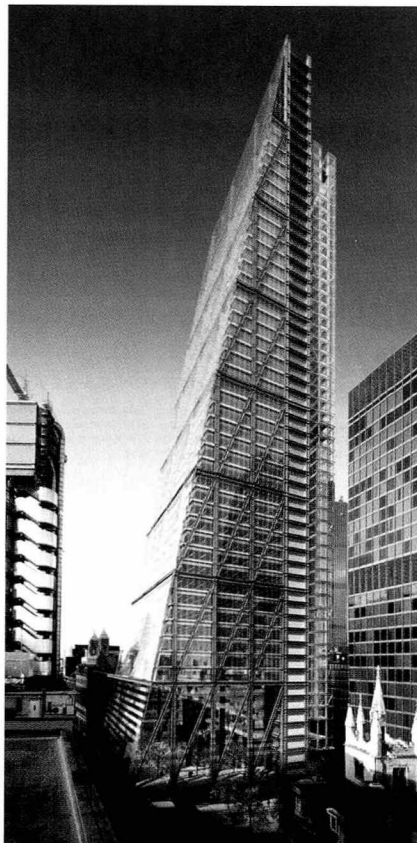
이런 각종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통해 전기 사용이 85%, 가스 사용이 87% 감소되는 충격적 결과를 만들었고 물 또한 28%의 사용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환경 재앙의 경고보다 이런 친환경적 태도가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그 중요성은 더욱더 절실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선문대학교, 부천대학 출강)



CH2



Leadenhall